

## 치 사

생명의 기운이 약진하는 봄소식과 같이 불교의 희망과 미래를 위하겠다는 삼화도량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더불어 경험이 풍부하고 종단과 불교가 나아갈 지향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영담스님께서 회장으로 추대된 것에도 깊은 축하를 드립니다.

올해는 종단개혁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종책모임 또한 그 역사적 토양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종단운영의 틀을 구성하고 지난 20여년 동안 여러 성과를 이루기도 했지만, 종단 내외의 환경 변화와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속에서 스스로의 한계와 부족함을 고민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종단과 불교에 기대 또한 갈수록 다양해지고 점차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그만큼 종도와 불자뿐 아니라 사회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하는 종교적 책무가 무거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과거와 달리 현재의 종책모임은 종단운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사회사업을 통해 다양한 계층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불교의 범주를 선 곳지 아니하고 건강한 사회와 행복한 시민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삼화도량 역시 이러한 뜻을 정성스레 담아내고 있기에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제34대 집행부 역시 건강한 종책 제시와 종무행정에 대한 조언을 폭넓게 이해하고, 모두가 이로운 종단 운영과 종도의 의견을 헤아리고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불자들이 평온함으로 일상을 이어가고 삶에서 즐거움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출가수행자로서 스스로의 본분사에 만족하는 정진을 이루고, 종도의 의

견을 주의 깊게 수렴하여 올바른 길을 안내하며, 종단의 발전을 통해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루는 세 가지 향기로운 꽃을 활짝 피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는 곧 자비를 실천하며 이웃의 평화를 만들어 가자는 종교적 책무를 다하는 일이며, 모든 생명들이 평화를 누리는 불국정토의 실현에 다가가는 뜻 깊은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곧 삼화도량의 설립 취지와 같이 여러 방편을 아울러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하나의 꽃으로 피워나갈 것이라는 의미에도 부합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종단 내외로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있는 스님들이기에 종단의 현안 문제를 비롯한 주요한 종단적 과제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항상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조언을 아끼지 말아 주시고 필요한 일에는 동참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적으로는 논의와 점검에 소홀하지 않으면서도, 외적으로는 종단의 안정과 중흥이라는 하나의 원력으로 불교적 책무를 다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시대에 따르고 미래를 지향하는 신선한 활동을 통해 종책모임이 갖고 있는 순기능의 역할에 함께 노력하고 소통과 화합속에서 무량한 발전을 이루길 축원합니다.

불기2558년 3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